



## 흑마법사와 짐승

자신의 영지에서 목욕을 하며 휴식을 취하던 로이는 그를 훑쳐보고 있는 그림자를 발견한다



## 등장인물

### 로이(흑마법사)

마법사로서 실력은 최고 수준이나 성격이 매우 오만하고 괴팍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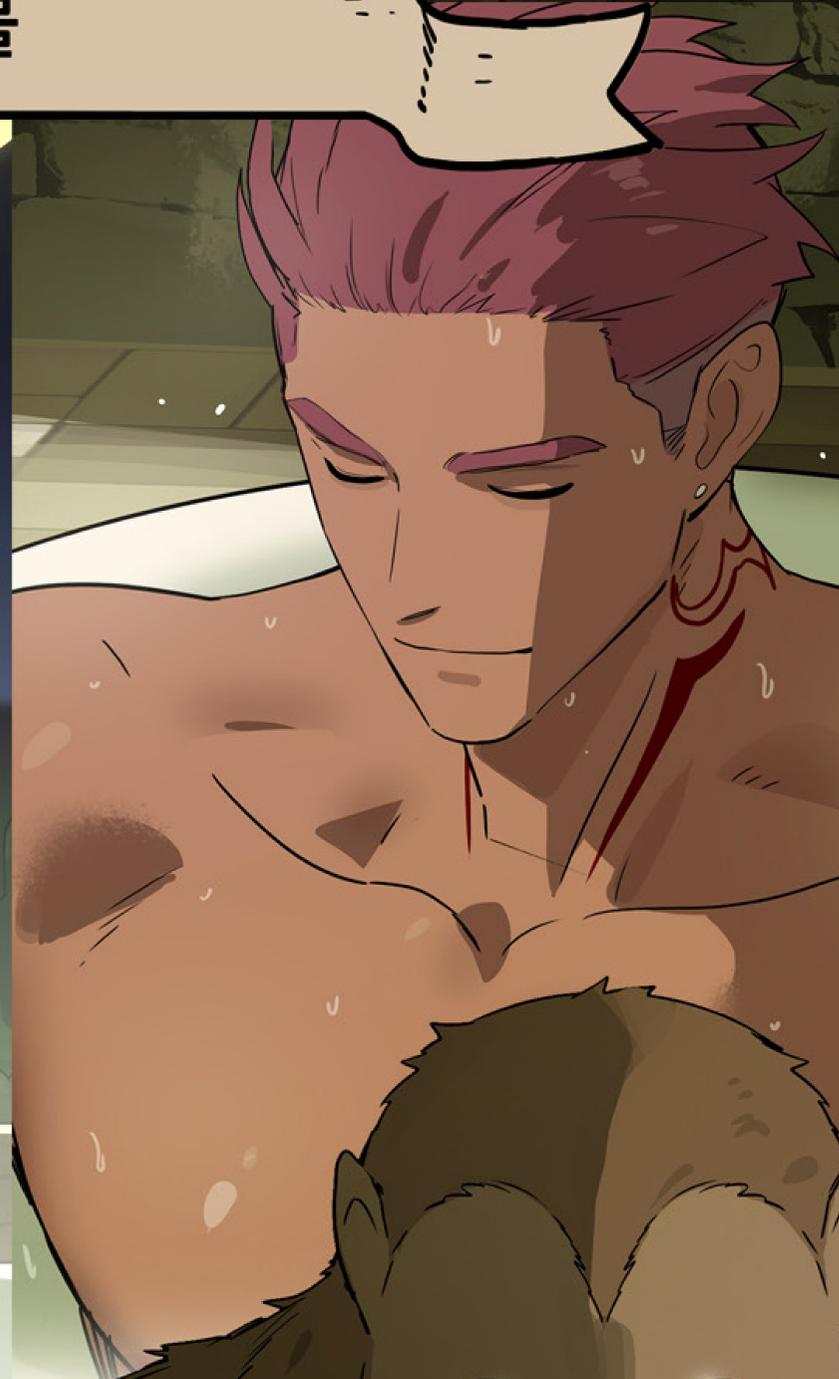
라이벌이던 오그에게 패배해 노예가 되었다가 꺾을 써 빠져나온 전력이 있다.

최근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오그에게 도움을 받아 매우 자존심이 상한 상태.



### 오그(흑마법사)

실력적으로 로이와 쌍벽을 이룬다. 처음엔 오만한 로이를 골탕 먹이는 데 흥미를 느꼈으나 최근엔 모난 성격 때문에 자주 곤란에 처하는 그를 염려하고 있다.



### 무무크(몬스터)

희귀한 몬스터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해를 가할 수 없다.

인간의 아이 정도로 지능이 높다. 무무크의 뇌는 값비싼 마력 증폭제의 재료가 된다.



이렇게 느긋한 목욕은  
오랜만이네...

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 
엄청 릴렉스 된단  
말이지...

휴식

번쩍

좋아 이렇게 잠생각 같은  
건 하지 말고 휴식을...

우웃!!!

그 자식은 왜 이상한  
짓을 해가지고선...

찰박..

음...♡

콧...

음...♡

영덩이 가벼운 로이였지만  
어째서인지 라이벌이었던  
오그와의 농밀한 키스를  
생각하면 참을 수 없이  
부끄러운 기분이 들었다

뭔가가  
보고 있다...

000

시시시

길 잃은 짐승인가...

하암...



히익



?

?

파

아오

오...이거  
무무크잖아?

이 녀석의 뇌가  
그렇게나 마력 증폭에  
효과가 좋다면...

끼  
이  
...

좋은 게 잡혔어

끼  
이  
이  
...

...

안타깝지만 나는 규정  
따위 신경 안 쓴다고

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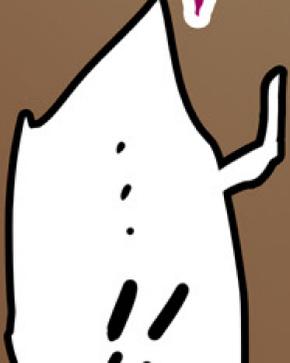


전혀 겁을  
안내는군...

한번도 인간에게  
위협받아 본 적 없는  
보호종의 여유인가

이런 외딴곳에서 무무크  
한 마리 사라져도 아무도  
모를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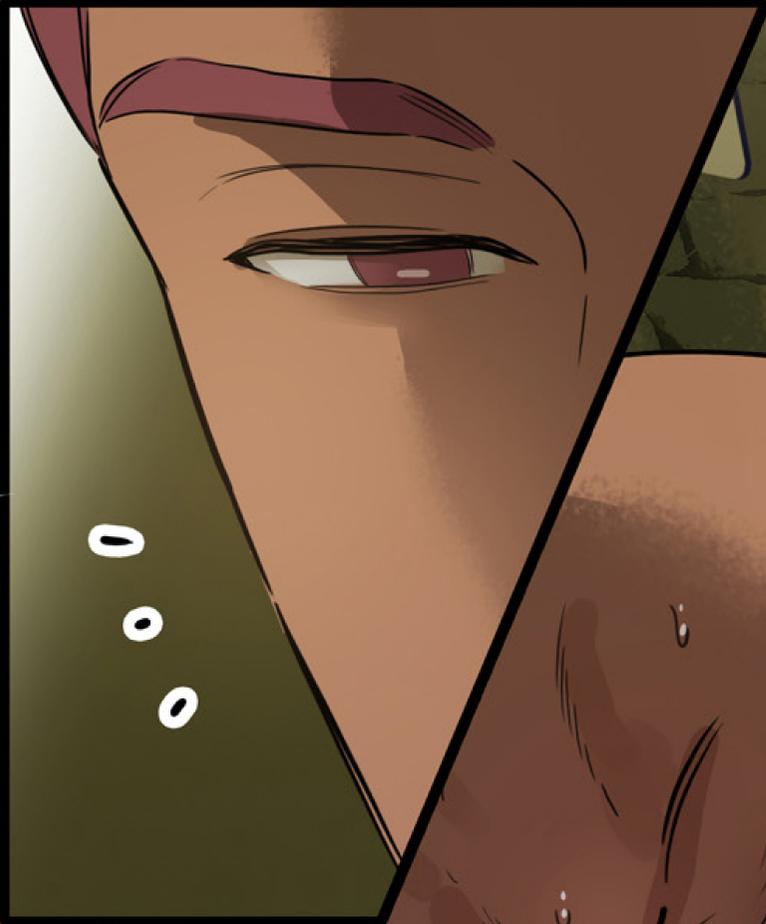
끼



끼  
끼  
끼



하아...?



○○○

Tpa

...

Tpa Tpa Tpa

이 짐승새끼가 감히  
나한테 발정을 해?!

겁을 상실해도  
정도가 있지!

오빠  
부친

헉

정

감히 나와 교접을 하고  
싶어한다고?

이런 짓...!

이런 짓을 나에게  
하고 싶은 거잖아  
...!

웅

웅

발기고추 움짚거리면서  
애널에 키스나 해대고...!

♡  
♡  
♡  
♡  
♡

좀 놀러볼까♥

망망

망망

아아...  
엄청나게 단단하고  
울퉁불퉁해♥

망망

핫♥

핫♥

후웃...♥

진짜로 섹스해줄  
생각은 없지만...

그야말로 짐승의  
자지♥

마치...오크의 물건처럼  
거대해...♥

포옹

오공질

미끌

포옹♥

오

위, 위험해♥

ㅁ...

호...

츄우

귀두가 기분 좋은 곳을  
눌러서 다리에 힘이  
풀려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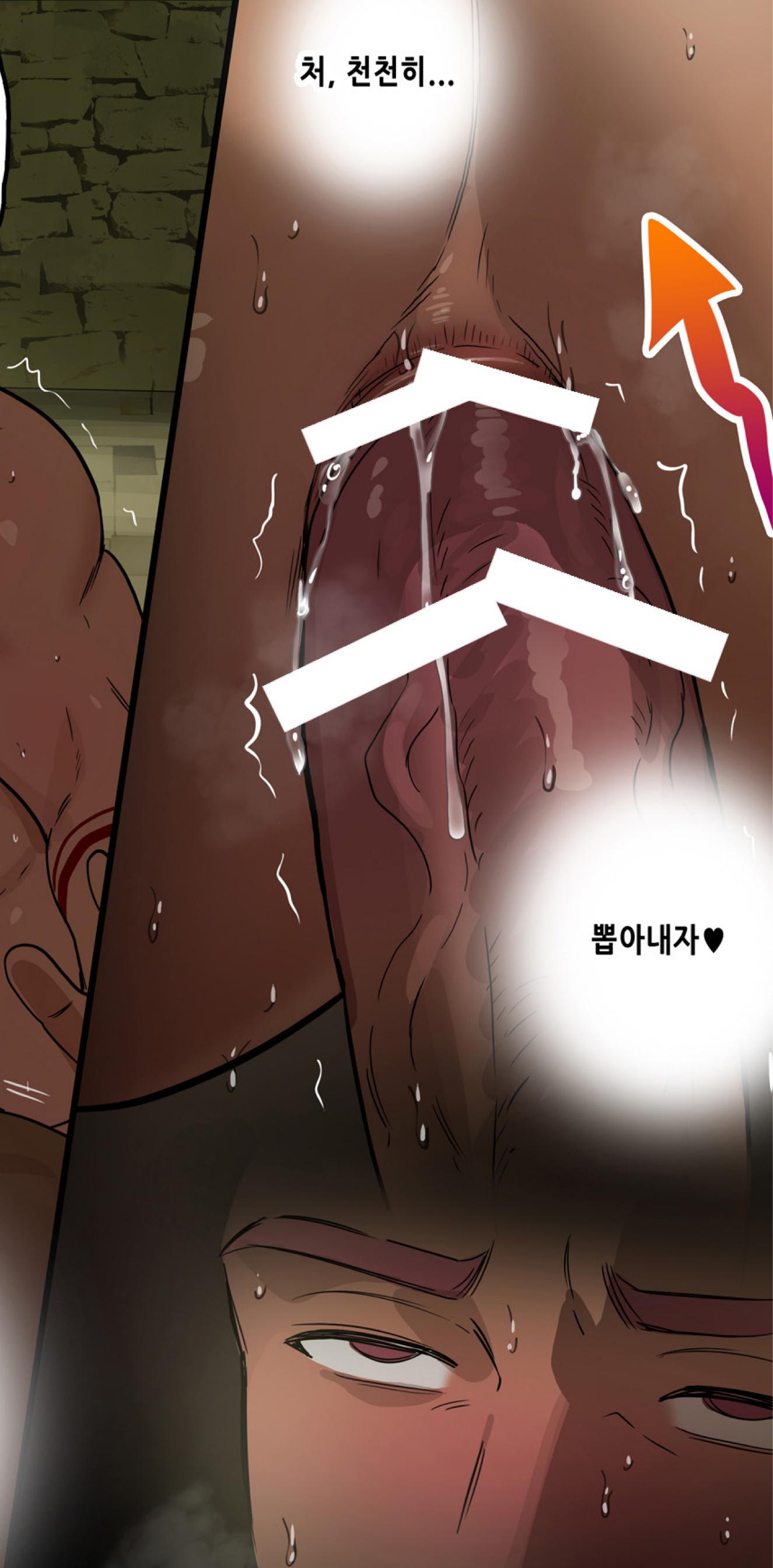
오

들어왔어엇...!!!!





흐웃...



처, 천천히...

뽑아내자♥

이, 이 자식 몸 안에서  
착실하게 크기 키우고  
있잖아♥

타이핑

히

나간다고

호...

오우...

오우...

오우...

오우...

오우...

흐긋?!

히로 내 약점을



웃...♥

하앗...!

그...마안♥

좋은 곳이 닿아서 허리가  
멋대로 움직여...!

일어설 수가  
없어...

꾸욱



자자

자자

아그웃!!!

아웃...♥

위험해♥

오...♥

등색

호웃♥

위험해♥

등색

등색

귀두 삼입만으로  
갈 것 같아♥

부크

몬스터 귀두로 자위  
해버려♥

등색





파  
0



타  
1



아...



7  
10  
0

피

크.....

흐...

피

피

아...  
.....!

그흐...!







아웃...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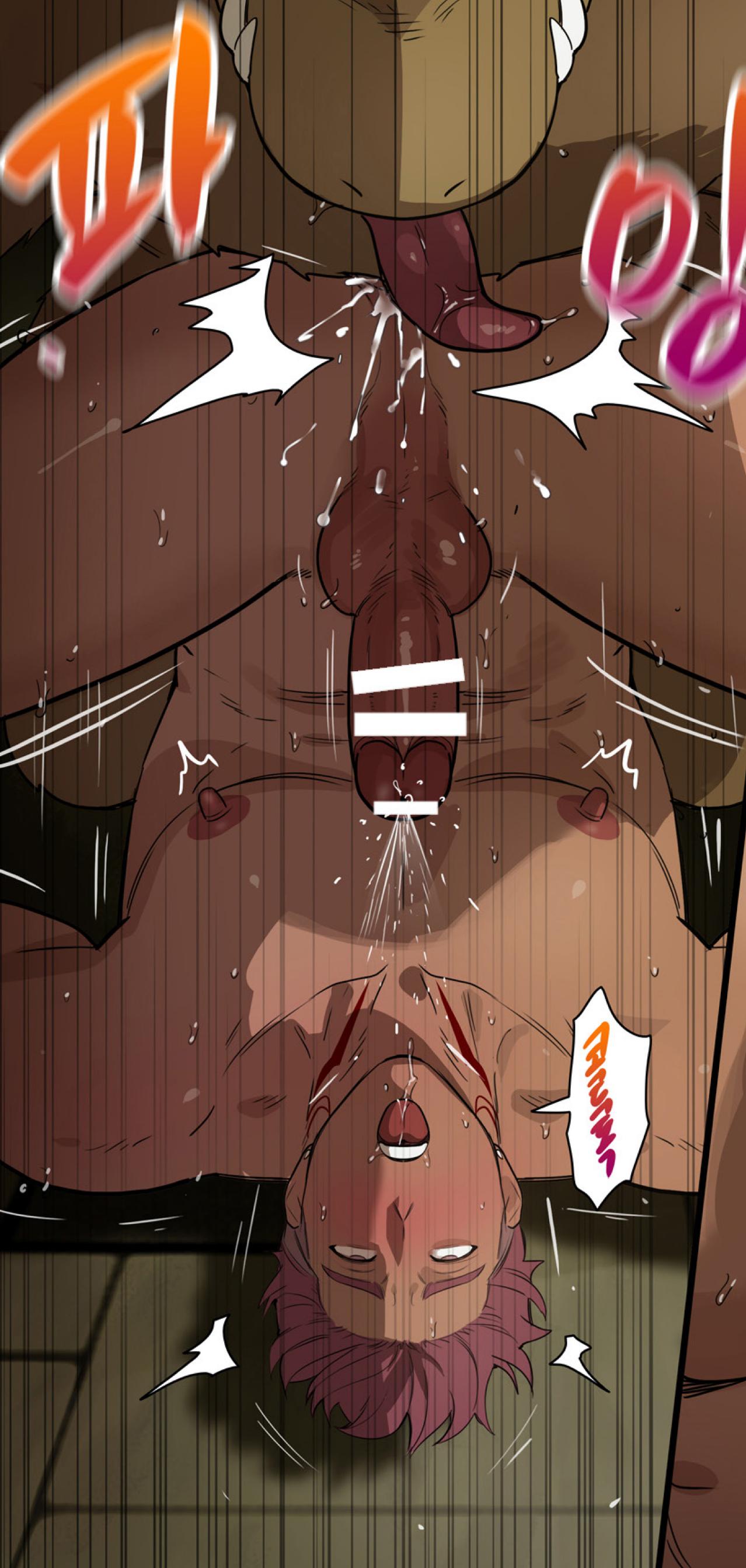
부들

강사악

부들

우흐웃...!

아...  
.....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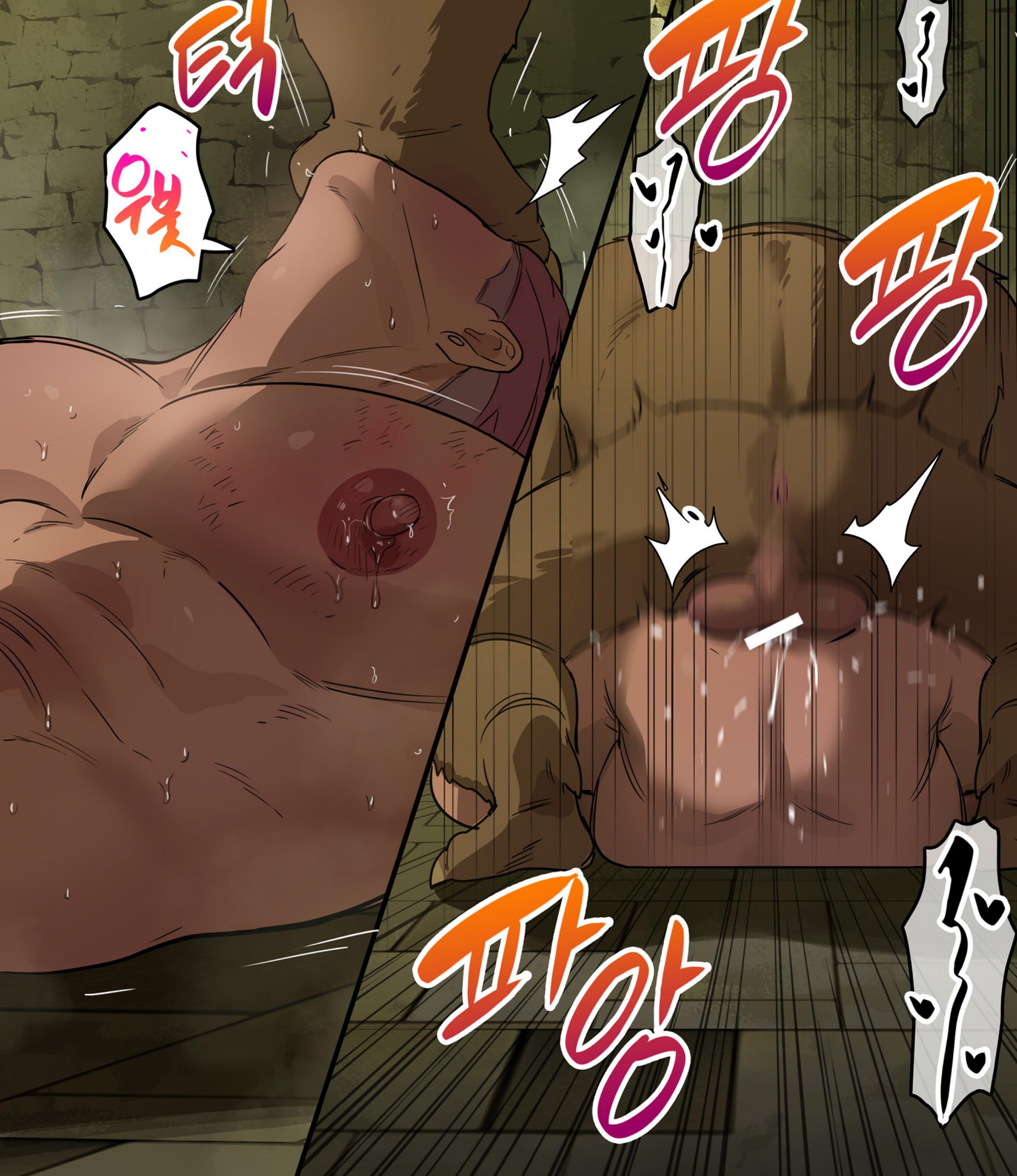
타

엿

팡

팡

파앙



내,

이 대마법사  
로이님이

즈꿏

우름,

부호웃..!

즈꿏

즈꿏

미친한 짐승의  
오나홀로  
전략하다니♥

내가...

위, 위험해♥

누군가...

짱

짱

짱

짱

이대로는 흥분한  
짐승한테  
살해당할지도♥

누군가 제발  
도와어어어♥♥♥♥

나 어째서...

오, 오그...!

그 녀석을...



사,

상관마!

너...

이번에도 감사인사는  
커녕 그렇게 뻔뻔하게  
나오시겠다?

여긴 어떻게 들어 온  
거야!

됐고, 무무크는  
어떻게 했어?

...기절시켜 봤어  
하루는 있어야 일어날  
거야

귀한 마력증폭제  
재료를 놓친 줄 알고  
놀랐네

무무크는 은근히  
흥폭해서 너  
자칫했으면...

아아 다행이다

뭐 이것만큼은  
칭찬해주지 오그

뇌 무게가 얼마나  
되려나

남은 부분들로는  
박제를 만들어야겠어

...

시우

이 멍청한 놈!

와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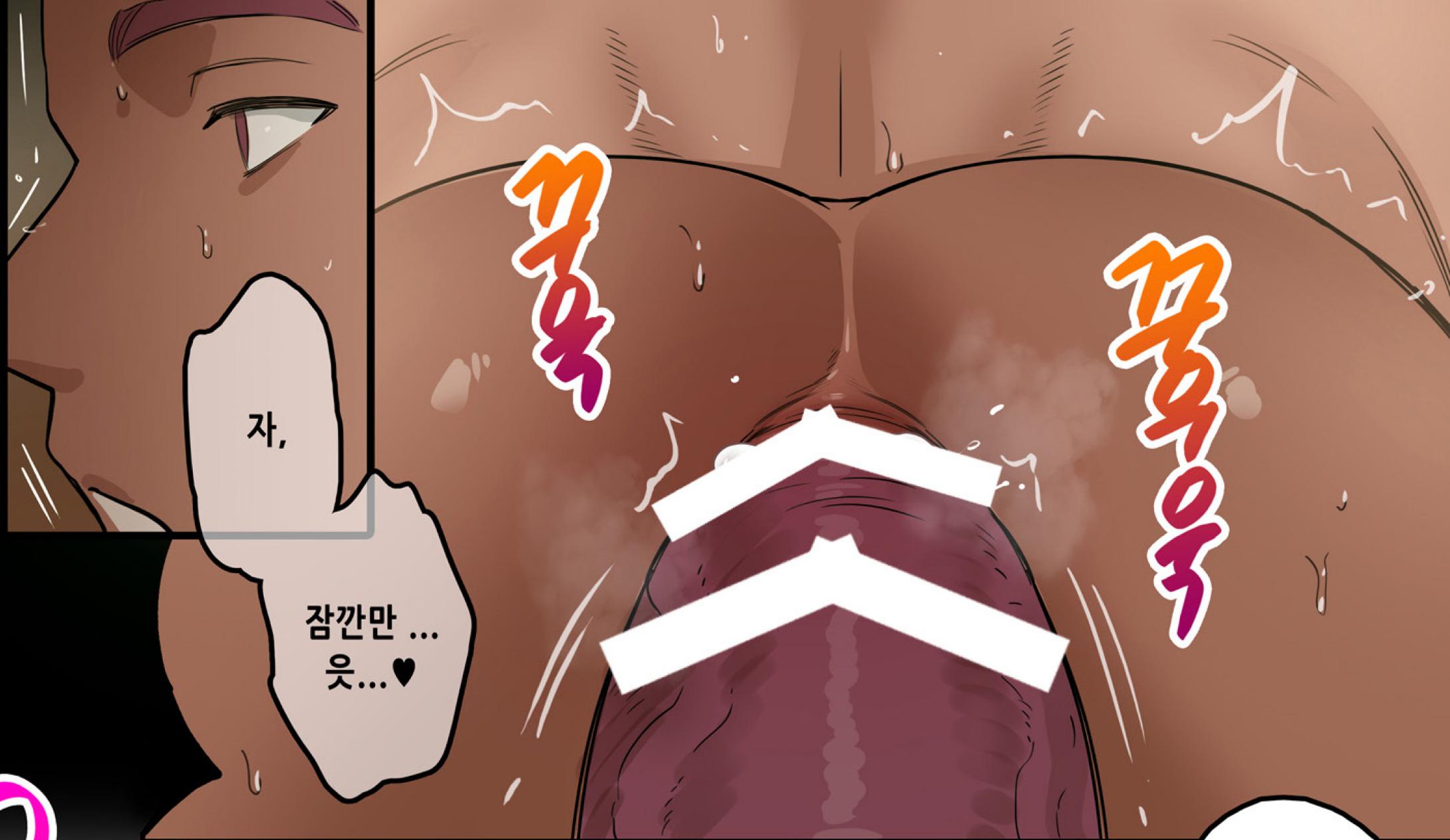
!

?

썩썩

그렇게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고 싶은 거냐!

무,무슨...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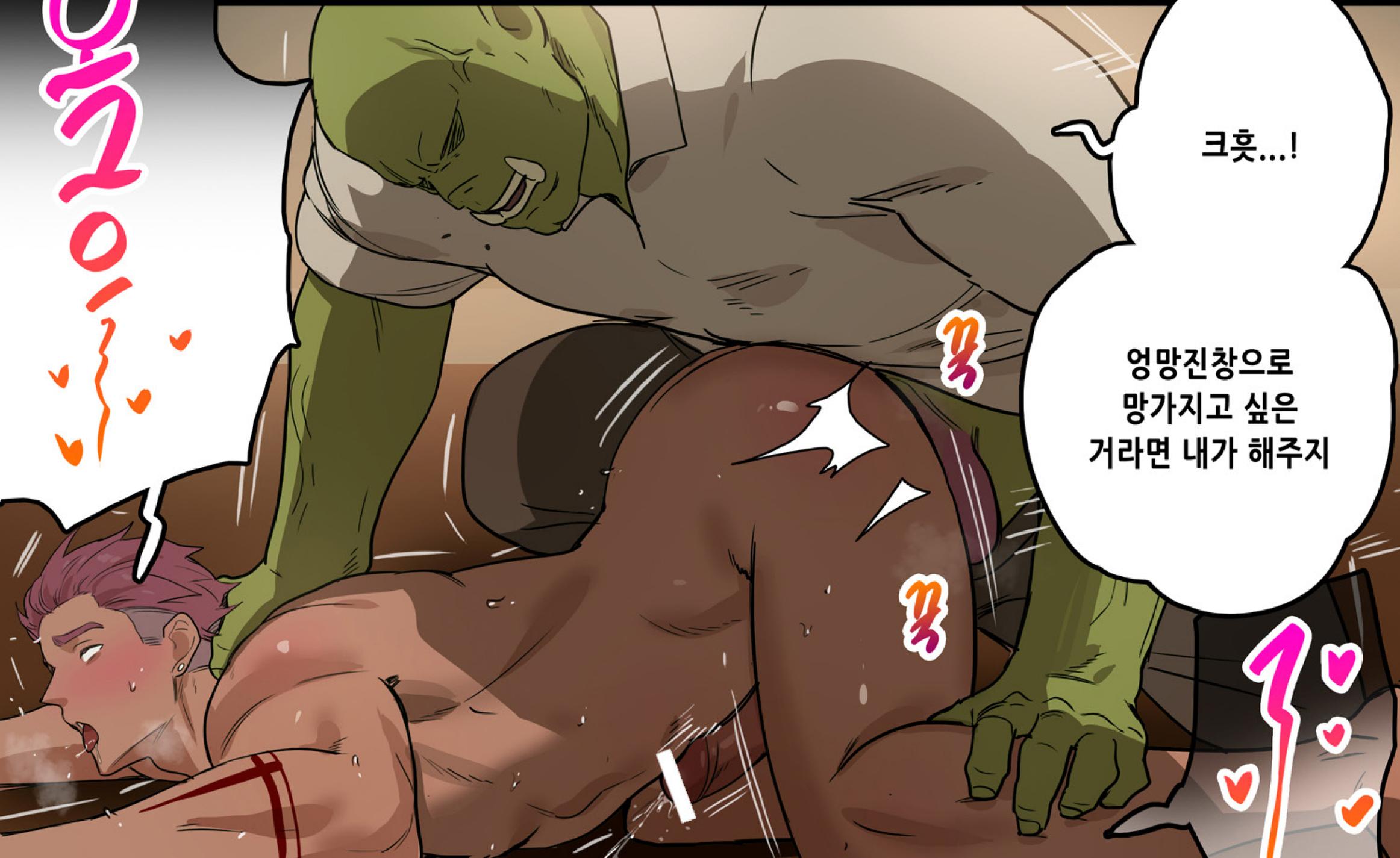
자,

잠깐만 ...  
웃...♥

꾸욱

꾸욱

오오오오오오



크흠...!

엉망진창으로  
망가지고 싶은  
거라면 내가 해주지

꾸욱

꾸욱

↑♥♥♥

저 짐승이랑 비교도 안 될  
정도로 범해줄 테니까

짹

짹

못♥

짹

못♥

짹

오나홀답게  
얌전히 있어!

짹

호그으으웃!

이 바보가...앗♥

네녀석의 천박한 자지가  
벌써부터 경련하면서  
정액 뿌려대고 있다고!

즈쌩

즈쌩

응웃!

이런 추잡스러운 강제  
짐승 교미가 그렇게  
좋은거냐!!!

앗

웃기지...

으긋!

우...아...

오쌩

이 무력감♥

덜덜덜

그런데 나는 어째서...

덜덜덜

덜덜덜

강제로 다리가 벌려져서  
뱃속 마구 휘저어지는데  
아무것도 못 해♥

우...

어째서...안심이 되는  
거야...

아...  
.....

우붓....!

...  
.....  
응... ♡

하아아

하아아

입벌려

사이가 나쁜 듯하면서도  
내심 궁합이 잘 맞는  
오그와 로이였다

END